



[소비 꿈틀] 열려라 지갑 되살아라 내수 연휴 보복소비 폭발 03



Economy

코스피	1895.37 (0.00)	코스닥	641.91 (0.00)
금리 (미국 3년)	0.975 (-0.031)	환율 (원/달러)	1229.10 (+10.90) (4일)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모습. 현대차가 9월 27일 개소한 H 하남 수소충전소.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 자율주행 실내 배달 로봇 '딜리 타워'.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 수소드론 DS30. /각사

카셰어링 저물고 자율차·드론 뜬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라

③ 모빌리티

감염병 위협에 카셰어링 섰다운 미래 사업성도 부정적으로 변해 '안전' 초점 미래 이동수단 준비 업계, 수소·자율주행차 등 주목

코로나19는 이동에 대한 인식도 바꿔버렸다. 경제적인 요인을 중요시했던 종전과 달리 감염 위협 없는 안전한 이동에 더욱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당장 미래 모빌리티 시장 전망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유 경제가 도입되면서 차량을 나눠쓰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거부감이 커지면서다.

우선 카셰어링이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다. 잇따른 섰다운 조치에 더해, 알 수 없는 사람이 탔던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률도 크게 떨어졌다.

GM이 지난달 카셰어링 사업인 '메이븐'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위기감은 더 커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7% 줄었고, 미래 사업성도 부정적으로 검토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엔택트를 중심으로한 뉴노멀 시대에서 카셰어링은 주류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미래차 시장은 다시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엔택트 시대를 맞아 오히려 차량을 소유하려는 고객이 늘어난 영향이다. 코로나19 영향에도 3월까지

판매량이 견조한 가운데, 4~5월 판매 절벽 이후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자동차 업계도 미래차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각국 정부가 저유가와 경기 침체, 코로나19 등으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산을 재편성하는 분위기에, 친환경차 출시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모습이다. 수소차와 관련한 연구 성과도 속속 나왔다.

현대차는 코로나19로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도 수소차 기술 개발뿐 아니라 수소차 알리기에 분주하다. 최근 2030년 수소차 50만대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소경제' 리더십을 이어감과 동시에 지난달 미국에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수출길을 여는데 성공하는 등 성과도 이뤘다. 방탄소년단과 '글로벌 수소 캠페인'도 시작했다.

효성그룹도 큰 힘이 됐다. 울산에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면서다. 효성은 2008년부터 수소 충전소 보급 사업도 이어왔으며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현실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가 엔택트를 지켜줄 미래 이동 수단 필수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민관이 힘을 모아 연구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물류 업계에서도 주목하는 분야다.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사람이 아닌 로봇에 배송을 맡길 수 있어서다.

물류 업계는 최근 코로나19로 물량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대면 접촉과 관련해 여러 문제를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4면에 계속)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14만 고용창출' 방사광가속기 어디로?

포항-나주-춘천-오창 '4파전' 7일 현장평가 후 8일 최종 선정

총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 결과가 오는 8일 발표된다. 충북 오창·경북 포항·전남 나주·강원 춘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유치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막판 유치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L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유치계획서를 마감했으며,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지조건(50점), 기본 요건(25점), 지자체 지원(25점) 등을 고려해 1, 2순위 후보 지역을 선정할 후 7일 현장 점검방문 평가를 진행해 최종 1곳을 결정할 계획이다.

방사광가속기는 '초정밀 거대 현미경'으로,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방사광을 만들어내는 장비이다. 방사광은 태양빛 밝기의 100억배에 달하기



포항가속기연구소 전경. /포항시

때문에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 단백질 구조나 1000초분의 1초에 준하는 찰나의 세포 움직임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 장비는 신소재, 바이오, 생명과학, 신약 개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장비로 꼽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들이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것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6조7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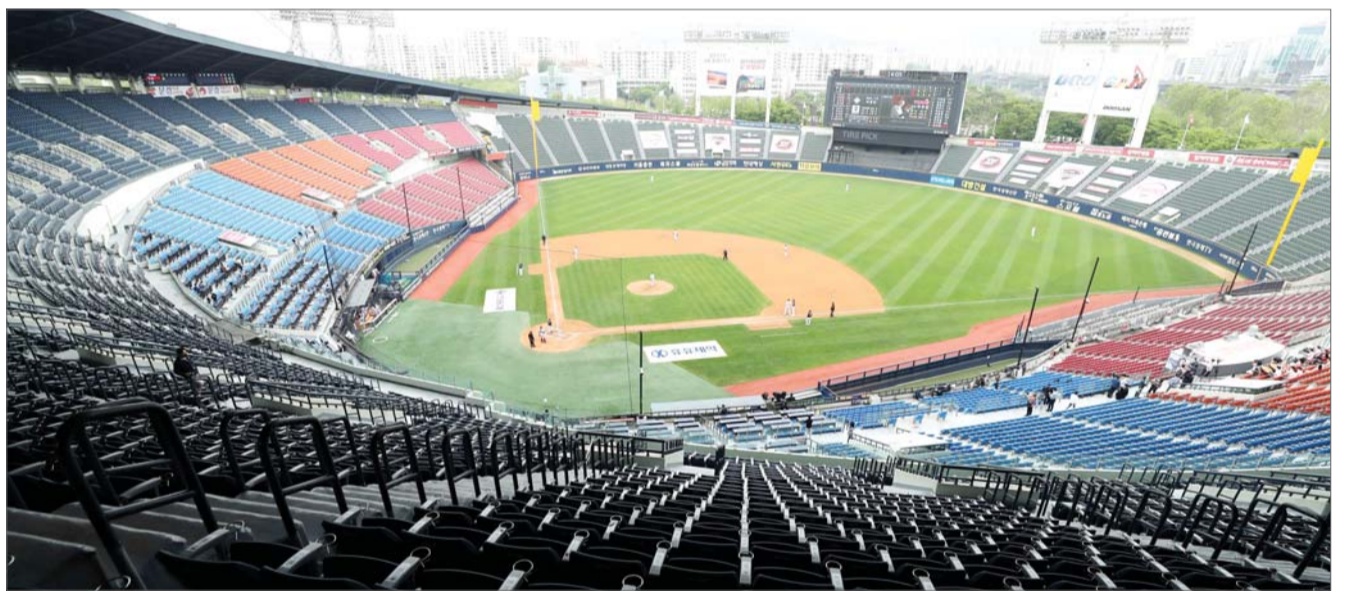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KBSI는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조4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13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항은 3세대(원형) 가속기와 4세대(선형) 가속기 등 2기가 운영 중으로 방사광가속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25년간 운영한 노하우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운용 가능 인력 300여명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에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있으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한국뇌연구원 등 바이오·신약개발 관련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나주는 대표적인 청정 지역으로 꼽히는 전남에 위치해 먹거리와 볼거리가 우수해 연구자들에게 최상의 연구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2020 KBO 프로야구 무관중 개막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무관중 개막 경기. 1회초 LG 선발 차우찬이 역투하고 있다. /뉴스1

현대차그룹 'GBC' 6년 만에 첫 삽 뜬다

서울시, 오늘께 착공허가 낼 듯

현대자동차그룹이 옛 한전부지를 매입한 지 6년 만에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공사를 이달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와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달 신사옥 GBC 착공에 들어가는 일정으로 최근 서울시에 착공계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6일께 착공허가를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6일 GBC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 당시 서울시는 2020년 상반기 착공, 2026년 하반기 준공 일정을 세웠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10조5500억원에 옛 한전부지를 매입했다. 토지매입대금은 현대차 55%, 현대모비스 25%, 기아차 20% 등의 비율로 나눠 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건립 부지.

담했다. GBC는 높이 569m,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의 국내 최고 건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건물에는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서고 고층 타워동의 104층과 105층은 전망대로 쓰인다.

현대차는 GBC를 개발하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에 1조7491억원 규모로 공공기여를 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은 서울시가 위탁받아 공사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현대건설이 맡아 한 뒤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현대차는 투자자를 유치해 GBC를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희선 현대차수석부회장은 지난해 5월 "삼성동 부지는 미래 가치가 높지만 핵심사업인 자동차 분야에 주력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해 공동개발을 하려는 것"이라며 "수익을 창출해 현대차 그룹 핵심사업에 재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착공을 하더라도 준공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성운 기자 ysw@